

<2022년 12월 25일 주일 핵심 말씀>

주제 :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크리스마스

본문 : 누가복음 2장 11-14절

-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주제>도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으로 했습니다.

- <아기 예수의 탄생 축하>는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아기가 아니고
2000년 역사를 이루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신부’로서 <성자와 함께 다시 오신 예수님>을
사랑으로 맞이하고 축하하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 시작>

-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행하신 일은
알면 알수록 감격과 은혜입니다.

-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땅에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독생자 아들의 주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 구약 4000년 동안 하나님의 종 입장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소원했던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 주려고 오셨습니다.
- 그러나 그들은 무지와 불신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며 죽였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자로 믿고 따르는 자들>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입장>이 되었습니다.
-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행 1:11, 요 14:18 참조)

그때는 ‘아들’ 이 아닌 ‘신랑’ 으로 와서
나를 믿는 너희가 나의 신부가 되게 해 주리라. (마 25장 참조)”

- ▶ 이 약속은 -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희망이었습니다.

- ▶ <성자와 함께 다시 오신 예수님을 알고 맞고 사는 자들>에게는
그 약속이 이루어져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 <구약>에서 ‘종’을 ‘자녀’로
한 단계 차원을 높이는 데 4000년이 걸렸습니다.

<신약>에서 ‘자녀’를 ‘사랑의 대상’으로
한 단계 차원을 높이는 데는 2000년이 걸렸습니다.

- <마태복음 25장 1~13절>에
그때는 ‘신랑’으로 온다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어,
-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며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대로
- 1000년 동안 혼인 잔치하며 약속대로 이루고 행하십니다.

-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신 역사를 이루시는가?
- <때>를 보면 알고,
- <시대에 행하신 일>을 보면 알고,
- <우리를 구원하시어 해 놓은 일>을 보면 압니다.

- 신약 때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에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았듯이,
이 시대도 시대 사명자에게 예수님께서 늘 나타나
성경을 풀어 주시며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알았습니다.

-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약역사가 왔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구시대 율법만 좇았던 자들은 구시대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게 하십니다.
- 이 시대도
성자와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시어 새 역사를 시작하셨어도 구시대만 좇는 자들은 구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뉠대로 구원 역사를 계속하십니다.

- 새 역사가 시작됐을 때,
성자와 함께 다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들은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됩니다.
- 저들은 ‘구약 이후 오신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이후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성자와 함께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입니다.

- 그 예수님이 ‘신약의 영’인지, ‘새 역사의 영’인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심정과 사명으로 온 사명자>를 통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때>와 <시대 말씀>을 통해,
<성자와 함께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신랑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신약 때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았듯이,
이 시대도 <예수님의 영>이 ‘시대 사명자’에게 매일 오셔서
매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신>도 <영>도 안 보이니,
시대마다 ‘합당한 자, 택한 자의 육신’을 쓰고 나타나서
가르치고 말씀하십니다.

<택한 그 한 사람>에게 시대를 말해 주고,
그와 같이 인생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뜻을 펴고 행하십니다.

-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역사를 펴실 때>,
<영>이 와서 ‘영’만 다니면서
사람들을 가르쳐 주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펴던 역사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 <구약 때>는
노아, 아브라함, 모세, 혹은 왕들이나 선지자들을 쓰고
그 시대 구원역사를 펴시며 약속하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 <신약 때>는 육신을 가진 ‘예수님’을 보내서 그를 통해 말씀하시며 <자녀급 구원역사>를 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다니시며 2000년 동안 <자신을 믿는 자들>을 ‘자신의 육신’으로 쓰시며 말씀하시고 역사를 펴 오셨습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단 한 번도 ‘육’으로 나타나지 않으셨고, 모두 ‘영’으로 나타나 말씀하며 함께 행하셨습니다.

- 선생님도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봤지만, <예수님의 육신>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영’만 봤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한 번도 못 봤으니, <예수님의 육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육의 모습’을 한 번만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의 모습’을 환상으로 한 번 보여 주셔서 본 일이 있습니다.

영의 모습과 육의 모습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 우리 중에 <예수님의 육신>을 보고 <그 육이 직접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맞은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영의 모습〉만 꿈이나, 환상으로나, 기도할 때나 순간 봤지,
(그나마도 못 본 사람들이 많다.)

모두 〈그의 육신이 되는 사명자〉를 통해서
〈시대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그때부터 ‘예수님의 육신’을 본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도
〈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육의 모습’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 선생이 21년 동안 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영’으로 나타나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육〉이 살았으면 왜 따르는 그들이 슬퍼했겠느냐?

〈영〉만 살아서 영으로 2000년 동안 돕고 구원 역사를 해 왔다.

내가 너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줬으니, 확실히 말해 주어라.”

- 〈예수님께서 최고로 걱정하시는 것〉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의 육신만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도 ‘예수님의 육신’만 기다렸으면,
지금도 시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연성전도 개발하지 않고
믿고 기다리기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맞고 행했기에, 수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를 따르게 해 주었습니다.

- 누구나 자기를 알아주기 원합니다. 확실히 알기 원합니다.
모르면, 마음이 상하고 다투고 분쟁합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그러하시고, 예수님도 그러하십니다.
모르면, 통하지도 않고 대화도 안 되고 심정이 상합니다.
- 추운 겨울날, 대둔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영’ 으로 내게 오셔서 심정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제대로 배우고 증거해라.

그때는 다 말하면 가혹하게 때리고 뺨박하고 죽이는 때였으니,
속 시원히 다 말하지 못했다.

〈율법 아래에서 메시아 오기를 기다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 예수를 보냈다고 하니,
그들은 순간 안색이 변하고 살인적인 혈기를 내며
나를 죽여야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성경에도 나에 대해 다 기록되지 않았다.”

- 예수님의 심정 타는 말씀을 들으면서,
혹독한 추위를 견디며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이 추위를 열흘도 못 견디는데,

‘그때는 그 추위에 대둔산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지?’ 하게 됩니다.

이같이 배워서 가르쳤다는 것을 알고, 제대로 알기 바랍니다.

-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당세를 겪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 하셨습니다.

온갖 수모와 핍박을 다 겪으면서 만민을 위해 죽어 주고,
2000년이나 역사를 펴면서 기다린 역사입니다!

그러니 <다시 오신 예수님>을 보통으로 맞아서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알고 맞이하며, 그의 탄생을 축하해야 됩니다.

-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 영>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 정도가 아닙니다.

키는 2m 50cm 이상이고,
옷은 발에 끌리는 흰옷을 입고 계시며,
얼굴은 티 하나 없이 맑고 빛나며,
피부는 그 어떤 미인의 얼굴과도 비교도 안 되게 부드럽고,
그 모습은 인자하고 사랑이 가득합니다.

선생님은 그 모습을 보고 반해서,
오직 예수님만 따라다니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굶어도, 아무것도 안 줘도 따라다니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랫동안 진정한 내 마음을 보시고

“그럼, 내 붓을 받아라.

너는 내가 하는 대로 똑같이 그리며 해라.” 하셨습니다.

<붓>은 ‘시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붓’을 주셨으니,

지금까지 ‘그의 육신’이 되어

오직 예수님께 배우고 ‘그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펴 왔습니다. (제공한 자료 사용)

- 지금도 예수님은 <이 시대를 알고 따르는 자들>,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을 ‘신부’로 삼고 역사를 펴십니다.
- 알아야 ‘하늘 신부’가 됩니다.
우리는 알았으니 <하늘 신부>로서 ‘사랑’으로 예수님을 맞고,
그를 보내 주신 성삼위께 감사하며 이 해를 보내기 바랍니다.
- 크리스마스가 되면,
항상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 커서 생일을 맞았는데,

아기 때 이야기만 하면 좋을까요?

다 컸으니, 사랑 이야기하면서 먹고 즐기며

<커서 한 일들>을 이야기해야 기쁘겠지요?

예수님도 그러하다고 하셨습니다.

- 그래서 지난주에는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 말씀해 주었고,
오늘은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크리스마스>로
이에 해당되는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 주었으니 생각하면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고 사랑 변하지 말고 살기를 축원합니다.